

■ 대구일보 2010년 1월 14일(목)

## 한겨울에 나누는 연탄한장의 온기



대구지역 한복업체인 백년가약(대표 황말선)은 13일 오후 어느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쪽방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이불과 전기장판 각 50개씩을 대구쪽방상담소에 전달했다.

황말선 대표는 “기름보일러가 있어도 고장났거나 비싼 기름값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쪽방 이웃들을 보고 후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ljw@idaegu.com